

한규성 한국양도양록농협 조합장

祝

양록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양록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양록 협회의 창립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전국의 양록회원 여러분!

협회가 1975년 5월 창립이후 우리나라 양록산업 발전에 크나 큰 기여를 해왔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첫째 1987년부터 회보 발행을 시작, 각종 사육기술 및 유통 정보 제공해 왔으며 둘째 1990년 동물보호법 제정시 녹혈 판매를 동물 학대로 간주하려 하였으나 협회가 적극 나서서 녹혈 생산을 합법화 함으로써 농가에서 지속적인 녹혈 판매를 가능토록 하였고 셋째 1991년 수입자유화 발표 시 검역 대폭 강화를 추진 관철시켰고 넷째 특소세 폐지, 축산폐수시설 설치대상 제외, 자가 소비를 위한 자가 도축 허용 등 많은 정책과 제도를 대정부 활동을 통해 양록회원 농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협회가 없다면 시름사육을 대변하는 단체가 없으므로 양록인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요구를 관철 시킬 수 없고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는 전국의 양록인들이 다시 각성하고 뭉쳐야 할 때 입니다.

회원 여러분 중에서도 협회에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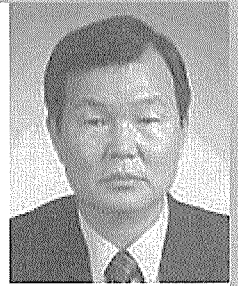
31년간 모든 고난을 겪어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왔습지만, 양록 산업의 미래는 아직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 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뭉치고 화합해서 우리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양록산업에 중시하는 회원과 유관단체가 모두 합심해서 양록 협회와 양도 양록 조합을 중심으로 뭉쳐서 양록업계의 무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아갑시다.

양록협회 31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업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협회장님이하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협회와 함께 한 몸이 되어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회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양록협회의 창립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전국의 사슴 농가를 위한 강력한 권익 대변 단체로 성장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남호경 축산단체협의회 회장

우리나라의 양육 산업과 동고동락해 온 한국양육 협회의 창립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양육협회는 농가에 사육기술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시세거래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농가의 권익을 대변하고 양육산업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또 양육 농가를 대변해 국산 녹용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고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조성하여 국산 녹용과 수입녹용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국내 양육 산업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협회보인 『한국양육』을 발행, 시세 및 녹용시세를 게재해 녹용시장을 투명하게 확립하게 하였고 이는 정부의 사슴 살처분 보상비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공신력을 인정받아 양육 산업 종사자들의 필수 정보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양육협회와 함께 한국의 양육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육협회는 국내 양육 농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육 산업을 위해 더 경주해주시기 바라며 양육자조금사업을 추진해 소비자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양육 산업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웰빙이 사회의 흐름으로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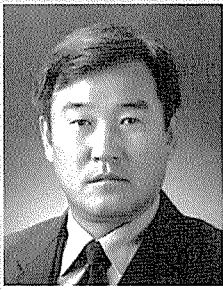
잡게 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에서 시작된 웰빙이 '삶'에 대한 화두로 자리잡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건강 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류에서 양육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국민 건강식품이자 약재로 자리 잡은 녹용은 이러한 웰빙 시대에 소비자에게 각광받을 것이며 양육 산업은 더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양육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양육자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우협회에서도 한우자조금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 결과 일반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양육협회도 양육인 스스로의 힘으로 국산 녹용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국내 양육 산업이 굳건한 소비기반을 갖추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31년이라는 오랜 경험을 발판으로 앞으로는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양육 산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한국양육협회의 창립 31주년을 축하드리며 발전하는 양육협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엄성호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祝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 온 한국양육협회 창립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양육인들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를 직시하고 실천에 옮겨온 산 증인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본업에 임해 온 흔적이 오늘의 역사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농업에 종사한지 오래된 한사람으로서 30여 년 전에 양육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의 선구자이거나 선각자가 틀림없습니다.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모인 한국양육협회인 만큼 그 미래는 창대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양육협회의 본질은 양육인들의 권익보호와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존재 할 것입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의 한 구성단체로서 품목의 권익과 우리나라 농업의 한 분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가는 양육인들이 있기에 우리 농업의 존재가 창립 31주년을 맞으며 더 한층 빛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근 회장을 필두로 전회원이 하나 되어 이룩한 이표사업은 양육 31년사에 길이 남을 사업입니다.

또한 한국양육협회의 지속사업인 '국산 녹용 안정 판매기반 조성사업', '사슴개체 등록사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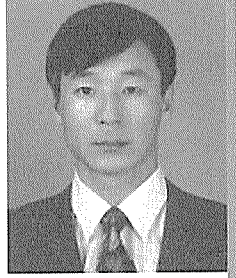
우리나라 양육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정책입안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를 위해 우리 농단체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으로써 조력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농업인들은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지애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 사안별로 분명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슬기로운 대처방안으로는 단결하여 뜻을 모으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품목 간에는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한 품목 내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품목 간에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품목 간에 대립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등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은 체결하게 되어 있고 이를 방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양육협회의 창립 31주년 기념을 다시금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 개방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할 준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한국양육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祝



김상우 축산연구사
축산연구소 가족유전자원시험장

먼저 한국양육협회 창립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협회를 방문하면 안타까웠던 좁은 협회 사무실도 작년에는 협회 회원들의 노력과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제 2 축산회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계는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우리도 국제경쟁력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작금의 국내 양육 현실은 어려운 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육 현실은 누구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육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협회로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고, 생산자 단체인 양육축협 또한 생산자의 권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와 대학의 몇몇 교수님들도 그 동안 사슴연구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분석하여 현장의 어려운 점을 과제에 반영하여 연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저희 시험장의 사슴연구는 '04년 1월부터 조직 개편에 의해 그동안 성환에서 수행하여 오던 것을 전북 남원으로 옮겨서 연구를 수행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

안 새로이 사슴축사도 신축하고 올해는 방목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내실 있고 우리 사슴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슴연구를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에는 유기농,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화 등의 단어들 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소비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녹용을 생산해야겠으며, 양육 농가는 좀더 합리적인 사양기술을 통하여 생산비를 줄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녹용 및 양육 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 양육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중지의 역할을 그동안 양육협회가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한국양육협회는 협회 고유의 역할 수행으로 양육 농가의 권익을 신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 회원들도 협회에서 무엇을 해주기를 먼저 바라지 말고 자조금을 활용한 양육 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자조금의 납부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국 양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협회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양육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